

지속가능발전의 역사

지속가능발전의 배경

물질문명사회의 이론적 배경>

현대 물질문명사회는 인본주의 사상과 기계론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 인본주의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널리 알려진 공리주의 철학을 근거로 합니다.

인간만을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하고 자연은 본원적 존재가치 없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인류는 자연을 소유·지배·관리함으로써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기계론적 유물론

일체의 현상을 기계적인 운동에 의한 것으로 보는 세계관을 말합니다. 우주와 자연을 마치 수많은 부품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여,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특정부속만 수리하거나 교체하면 다시 작동되는 것처럼 우주와 자연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경제·사회구조에서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는 이론적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50년대 – 누적된 공업화, 도시화로 대규모 환경오염사건 발생>

- 1952년, 런던에서는 대기오염으로 1주일간 12,000명이 사망한 스모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1954년, LA에서도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치명적인 스모그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눈, 코, 기도, 폐에 질환을 일으키고 건축물을 손상시키는 등의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 1956년, 일본에서는 수은중독으로 인한 미나마타병 발생하여 2001년까지 공식적으로 2265명의 관련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연을 희생시키면서 이룩한 경제성장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또는 ‘이러한 형태의 발전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1960년대 – 다양한 저술들로 환경파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시작>

- 1962년,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유독성 살충제인 DDT가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되어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였습니다.
- 1972년,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세계의 인구·오염·식량생산과 자원 소모의 현재추세가 감소되지 않는 한 지구의 상장한계는 100년 이내에 도달할 것이며 환경적 재앙과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1973년, 영국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프리드리히 슈마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양적인 팽창과 성장을 추구하는 과학기술문명을 지양하고 중간기술과 생태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질적 경제를 추구해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각성은 1972년 “하나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슬로건으로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UN 인간환경회의(UNCHE: UN Conference on Human and Environment)에서 처음으로 결집되었습니다.